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감사함으로 돌보아요!

환경주일 특별 임무: 하나님의 특별 도우미가 되는 법



창세기 2장 15절

딱 5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두근두근 뛰는
내 심장소리



코끝을 스치며
들어왔다 나가는
공기



밖에서 짹짹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짧은 5초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세상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1



파란 하늘

2



초록 나무

3



줄줄 흐르는 냇물

맞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주아주 많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5)



•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다는 뜻!



• 자연을 보호하고,
소중히 다룬다는 뜻!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학교의 식물 당번

역할: 일주일 동안
교실 식물에 물 주기

주인인가요?: 주인이 아니라
‘돌봐주는 역할’

=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돌보기

주인인가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잘 관리하는 역할’

청지기란? =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

온 우주에서 선택받은 단 한 사람!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네가 잘 돌봐줄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골라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도우미'예요.

우리는 억지로 일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발적인 돌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돌보게 돼요!



사랑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어린이 특별 도우미가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미션!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에요.



미션 1.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리기!



길에 버린 쓰레기는 빗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가요. 비닐봉지를
먹이인 줄 알고 먹는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아주 아파해요.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혹시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용감하게 주워서 버려요.
그것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에요.

미션 2.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기!



양치할 땐 컵을 쓰고
물 잠그기



아무도 없는
빈 방의 불 끄기



연필과 종이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기

**무조건 새것만 찾고 바라나요? 사용할 수 있는데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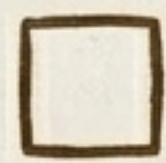
미션 3.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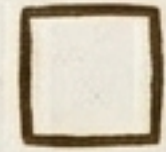
돌봄의 진짜 시작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커질수록 자연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답니다!

이번 주, 나의 미션 딱 하나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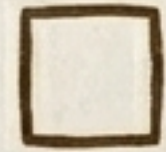
Mission Checklist



분리수거 잘하기 /
길거리 쓰레기 제자리에 버리기



양치할 때 물 잠그고, 안 쓰는 방 불 끄기



아침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소리 내어 말하기

마음속으로 하나를 골랐나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 함께 기억하고,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감사함으로 돌보아요!



멋진 지구 탐험대원 여러분, 임무 완료를 축하합니다!